

전주시 '지혜의 반찬' 추진 빈축

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희망도서 연간 3회 이상 전달 계획... 전시성 포퓰리즘 행정 지적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 성공에 고무된 전주시가 '지혜의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알맹이도 없는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성공을 발판으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명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2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아동 희망도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혜의 반찬은 전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청소년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혜의 밥상 사업은 시가 지원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대상 아동 277명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158명,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165명 등 지원 대상자 600명에게 후원자·후원기관 등과 연계해 희망도서를 연간 3회 이상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의 이관 협약에 따라 도서 640여권을 구입할 수 있는 800만원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서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같은 전주시의 발표에 저소득계층 아동들에게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혜의 반찬'이라는 거창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명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2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아동 희망도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혜의 반찬은 전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동·청소년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이름을 붙여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매몰, 경기 불황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주시는 이미 10개의 공공도서관을 갖추고 있고 내년에 효자동서관이 추가로 조성되면 시립도서관 11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27개소로 전국 최고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지혜의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도서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전시성 포퓰리즘 행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도시락을 배달하는 엄마의 밥상

에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이 더해질 것"이라며 "엄마의 밥상을 전주시민들과 함께 차린 것처럼 지혜의 반찬 또한 시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함께 차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군산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고'

금융 분야 종합 최우수, 미디어·식품 분야 영역별 최우수 판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진행한 '2015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우수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대에 따르면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5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발표 세미나'에서 군산대는 교육부와 경제5단체, 대교협 공동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입장에서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제시하고 대학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경제5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금융, 게임, 미디어, 식품 4개 분야 학과가 설치된 대학 가운데 참여 희망 56개 대학의 99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돼 최우수대학으로는 금융 8개, 게임 5개, 미디어

8개, 식품 12개 학과가 뽑혔다. 이 가운데 군산대는 금융 분야에서 종합 최우수, 미디어와 식품 분야에서는 영역별 최우수 판정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금융 분야는 신소재공학과의 산업체 요구를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 산업계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효율적인 현장실습 운영시스템, 캡스톤 디자인 필수과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디어 분야는 미디어문화학과가 참여해 산업계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 영역, 식품분야 산업계기반 교육과정설계영역에서는 식품생명공학전공이 참여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대 도서관-식물병리학회 농축산 정보 지원 업무협약

전북대학교와 한국식물병리학회 협약을 맺었다.

21일 전북대 도서관과 한국식물병리학회는 농축산 분야 학술 정보 지원을 효율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가의 해외 학술지를 공동으로 이용해 정보 지원 활동을 극대화하고 국가 예산 절감 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보유 자료나 출판물 등을 상호 교류하고, 학술세미나 등에 상대 기관의 사업을 홍보하는 등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대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도서관에 620종의 농축산 분야 외국학술지를 구축한 상태다. /박용주 기자

도내 역사 교원 군산·익산 역사유산 활용 연수

23~24일 일제 강점기 수탈과 저항·익산의 백제문화와 근현대사 등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등 역사 교원들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군산과 익산에서 역사유산 활용 연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초·중·고교 역사 담당 교원, 교육전문직 80여명이 참여하게 되며, 김중수 군산대 교수, 조법중 우석대 교수, 권익산 원광고 교사, 이우중 순창제일고 교사가 기초 강연 및 안내를 맡는다.

23일 군산지역 연수는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의 식량 수탈 현장을 중심으로 강연과 현지 답사가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먼저 김중수 군산대 교

수가 '군산의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기초강연을 들은 뒤, 옥구저수지로 이동해 일본인 이주정책과 간척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일파역·시마타니 농장·동국사·히로쓰 가옥·군산항을 차례로 돌며 철도건설과 옥구농민항쟁, 군산에 정착한 일본인과 불교, 개항과 쌀 수탈 등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짚어볼 계획이다.

24일 익산지역 연수는 '익산의 백제 문화와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조법중 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연수가 진행된다. /고민형 기자

교사들은 이어 왕궁리 유적지와 제석사지를 찾아 백제 궁성의 운영, 무왕의 익산 천도 등에 대해 알아본 뒤 오후에는 미륵사지·연동리 석불사·여산동원 등을 돌며 미륵사의 창건과 석탑 해체 복원, 백제의 불상, 조선 후기 동헌과 병인박해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군산지역의 식량 수탈과 이에 대한 저항, 익산의 백제문화유산, 조선의 개항과 천주교 박해에 대해 깊이 있는 연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흑석골 동네체육시설 조성 완료

전주시는 완산구 서서학동 내 흑석골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공사에는 토지매입비와 체육시설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6억1000여원에 농구와 축구, 배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과 주차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서서학동 등 흑석골 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총 9억원을 들여 휴게시설과 운동기구를 갖춘 '흑석골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 또, 만남의 광장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체육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해 최근 사업을 완공했다. /김영재 기자

제3회 재전백산중·고 동창회 체육대회

4. 30. 10시 / 전주 완산체육공원 A축구장

주최 재전백산중·고동창회 협찬 백산골프회



고문 김수곤
전 전북대총장(3회)



고문 송택섭
(14회)



회장 김재기
(14회)

수석부회장	박도열(18)	이용훈(21)
부회장	이광수(17)	이상만(18)
재무	박기영(22)	
감독	김재규(24)	최낙삼(26)
사무총장	김재호(28)	
사무차장	김경섭(28)	최병곤(29)
운영위원	박영래(15)	신원식(16)
자문위원	송윤철(14)	김종진(18)